

와인과 황남빵



전 형 일 의
세상이야기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국무장관 시절 자국에서 유명한 요리사 80여 명을 ‘국가 요리사(State Chef)’로 임명했다. 그녀는 이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요리는 가장 오래된 외교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상대국 국민에 대한 ‘공공 외교(Culinary Diplomacy)’다.

중국이 미국과 국교 수립 전 저우언라이가 킨저와 함께한 음식이 베이징 덕, 즉 북경 오리였다. 지금도 영업 중인 ‘취안 쥐더’라는 베이징 덕 전문 요리 집에서였다. 마우쩌둥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뒤 처음으로 인정해 준 소련의 중국대사로 슈친에게 대접한 음식도 베이징 덕이었다. 우리는 중국 황실에서 즐기던 음식이다 보니 이를 대접하는 것은 황제와 같이 모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로써 베이징 덕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2018년 4월 27일 역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배달 된 음식은 평양의 옥

류관 냉면이었다. 이 냉면을 남북한 정상 이 한자리에 앉아서 먹음으로써 평양냉면은 한반도 화합의 상징이 되었다. 영국 언론 가디언도 “평화의 상징은 이제 비둘기가 아니라 평양냉면이다”라고 보도했다.

음식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자연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문화가 된다. 술 또한 마찬가지다. 중국인에게 마오타이는 술이 아니라 문화다. 그래서 마오타이는 중국 외교의 현장에 한 부분으로 참여한다.

1972년 미중 정상회담에도, 1984년 홍콩 반환을 위한 덩샤오핑-대처 회담에도 마오타이는 빠지지 않았다. 2018년 3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접대한 술도 마오타이였다. 당시 마오타이 중에서도 최고인 ‘아이쭈이 장핑’이었다. 1960년대 생산된 것으로 한 병에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한 잔에 320만 원쯤 되는 셈이다. 마오타이는 기원전 135년 한 무제가 마시고 칭찬했다는 얘기가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돼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2000년이 넘는다.

2015년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란에 대한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중요한 만남이었다. 그런데 이란 측이 오찬에서 와인을 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프랑스는 “이스람교도가 아닌 사람에게만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란은 이마저도 거절했다.

프랑스는 ‘no wine, no lunch’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리고 ‘프랑스 문화를 존중해라’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거절하겠다’로 결정했다. 결국 오찬은 물론 조찬도 없는 회담만 가졌다. 당연히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는 와인을 포함한 자국의 음식 문화를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에서 나온 프랑스 외교 정책에 대한 천명이었다.

최근 APEC 정상회의 때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한 ‘황남빵’,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공된 ‘비비비당의 오감차(五感茶)’, 중동 왕세자가 고국으로 가져간 ‘볶음김치’ 등은 ‘외교의 상징’이 됐다. 간배주인 ‘호랑이 유자생각ल्ली’ 역시 각국 정상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이미 잘 알려진 한국 음식 외에 다양한 메뉴로 확장되면서 K-푸드가 외교 성공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김밥’을 식탁 한편에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다.

전 언론인/ 명리학자/ 철학박사
저서 : 명리 인문학, 자주팔자 30문 30답

호의와 호구



기 지 수 첩
서 예 진
(정처부)

“호의를 베풀었더니 호구 취급만 당한다.” 요즘 자주 보는 한탄이다.

선의를 베풀어도 고맙다는 말이 없다. 감사 인사를 받기 위한 일이 아님에도, 도움을 받은 이가 ‘입을 싹 씻으면’ 찻찻한게 인지상정이다. 대가 없는 호의를 당연시한다. 기대와 다르면 “이게 다냐?”라고 한다. 친절하게 대하면 ‘호구’라고 생각하고 태도를 달리 한다.

사실 호의는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자발적인 선택을 ‘바보같은 선택’으로 만든다. 호의를 관리처럼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 선의를 갖고 다가가다가 마음을 다치는 이들이 많아졌다.

‘위선적이다’라는 말도 자주 보인다. 착한 행동을 했을 때 “착한 척 한다”고 말한다. 사실 그 행동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해야 하는 행동일 공산이 크다. 그러니 저건 사람인 척 하기도 하기 싫은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에게 되레 “위선 떨지 말라”고 손가락질 하는 격이다.

호의를 건넨 쪽만 상처를 받는 구조. ‘사람다운’ 행동을 했을 때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는 사회. 그래서일까. 선의를 갖고 다가가셨음에도 ‘손해 본 것 같은데?’라는 기분이 든다면, 이게 정상일까. 이 호의엔 대가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음에도.

호의를 건넨던 사람들이 “다신 안 한다”고 등을 돌리고, 도움을 받던 사람들은 그것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남는 건 각자도생이다. 도움 받을 때만 사회이고, 도움 줄 때는 손해라고 여기는 분위기에서는 따뜻함이 설

수 없다. 이렇다 사회에 배려를 모르고, 연민할 줄 모르는 이들로만 가득차는 건 아닐까. 이런 식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도 언젠가는 틀린 명제가 될지 모른다.

‘호의를 베풀면 호구가 되는 사회’를 원하는가. 혹시라도 본인은 누군가의 호의, 선의,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노조를 비웃던 사람들이 부당노동행위를 맞닥뜨렸을 때가장 먼저 노조를 찾아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넘어진 이를 비웃던 사람들은 어떨까. 본인이 넘어졌을 땐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할 것이다. 먼저 손을 건넨 이를 보고 조소하는 사회. 남의 배려를 염가에 소비하며 미안함조차 없는 이들. 점점 늘어가는 상처받은 사람들. 이게 정상적인 사회일까.

그러니 호의를 베투지 말자. 베투을수록, 사회의 온기는 점점 식을테니...

/서예진 기자 syj@

오늘의 운세

11월 20일 (음 10월 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주변이 동지과 같이 협조. 48년생 원하는 것이 없으니 얻을 것도 없다. 60년생 인내하고 기다리니 많은 좋은 일이 발생 하는 날. 72년생 무리한 투자는 손실로울 수 있다. 84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37년생 추억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 49년생 수영을 하러 바다에 나왔으니 해엄을 치거나 가라앉거나 둘 중 하나. 61년생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도 중요. 73년생 앞던이가 빠지는 기분. 85년생 불로소득이 발생하지만 글썽.

38년생 가을에 단비 오듯이 일이 잘 해결. 50년생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62년생 실패를 좋은 경험으로 삼아라. 74년생 보라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을. 86년생 돌 팔매질을 하면 큰일이 나니 겸손.

39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니 실망은 금물. 51년생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63년생 망설이는 사이 기회는 날아간다. 75년생 적은 돈이 들어와도 주변들과 나누어야. 87년생 오랜 적선이 내게로 돌아오는 하루.

40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52년생 운이 막히니 세상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는 않는다. 64년생 지나가는 바람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 76년생 십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 했으니. 88년생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크다.

41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53년생 갈 길은 멀고 발걸음은 멀어지지 않으니 잠시 지체. 65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노력이 우선이니. 77년생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89년생 위기를 겪으며 중심 부분을 깨닫는다.

42년생 착한 친구를 만나니 행복한 하루. 54년생 자신이 옳다 해도 침묵할 줄 알아야 현명. 66년생 혼자만 바쁘고 남들은 손 놓고 있다. 78년생 실력은 늘 공으로 먹는 게 아니다. 90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니 당연히 더러워지게 되니.

43년생 호랑이 무서운 줄 알고 덤벼라. 55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뛸지 않는다. 67년생 지나간 인연이 다시 찾아오니 마음이 혼란스럽다. 79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해야 열매인데. 91년생 동료와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가 발생한다.

44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56년생 뜻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68년생 차 매수는 이후로. 80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92년생 구름 속 태양을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45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자. 57년생 획기적인 발상으로 큰일을 한다. 69년생 작은 약속도 가볍이 여기지 마라. 81년생 운을 바꾸자면 집안 청소를 하고 환기도 시켜라. 93년생 동료에게는 항상 말조심을.

46년생 목이 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다. 58년생 행복은 당신이 만들어 가기 나름이다. 70년생 감정절제를 해야 일이 성사되니. 82년생 진실이 늘 최상의 답은 아니니 포용이 중요하다. 94년생 돼지를 사기전에 돼지우리를 먼저 만들어라.

47년생 황혼이혼은 결국 사면초가를 면치 못한다. 59년생 인생에서 늦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71년생 자식이 자랑거리를 잔뜩 가져온다. 83년생 상처는 나이도 흉터는 남는다. 95년생 물건이든 사람이든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하지 마라.

김상회의四季 지혜와 품격

숙종을 이어 보위에 오른 장희빈 소생의 경종, 다음으로는 경종의 이복동생인 영인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영조다. 조선조 왕들의 평균 수명이 50을 못넘기던 것에 비하면 참으로 축복받은 장수임에는 틀림이 없다. 80세를 넘기며 장수하여 51년을 넘게 재위했고 조선 후기의 중흥을 이끌었으니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게 하는 결정을 내려 임오壬午화변을 겪게 하였다. 壬午화변으로 영조의 치세는 흠을 갖게 되지만 장수하는 영조보다 일찍 세상을 뜬 정성왕후 이후 66세 때 맞이한 이가 정순왕후다. 정순왕후는 15세라 하였으니 무려 50년의 나이 차이가 났다. 그런데 이 규수가 지혜와 혜안만큼은 나이를 불문하게 했다. 당시 왕후를 간택하는 자리에서 영조는 직접 간택대상자들을 놓고 묻는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나는 왕의 물음에 다른 규수들은 물이 깊다, 산의 골짜기가 깊네 했지만, 정순왕후는 사람의 마음이 제일 깊다고 답한다. 감탄하며 다시 질문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냐 물으니 가장 아름다운 꽃은 목화꽃이다. 왜냐하면, 향기와 빛깔은 없으나 백성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라는 말에 영조는 감탄하며 이아가씨를 왕후로 삼는다. 어리지만 지혜와 혜안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영조의 사후, 정순왕후는 이후 내리 정조와 순조대를 거치며 쉼 안의 왕대비로서 특히 11살에 즉위한 순조 때에는 수렴청정하면서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조를 사로잡은 지혜와 혜안이 어디 갔겠는가마는 후사는 정순왕후가 정조를 독살하는 데 힘을 합쳤다고도 하고 순조 때 수렴청정을 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정조의 개혁유산을 후퇴시켰다고도 한다. 모쪼록 왕비 간택시에 보여준 일화가 사실이라면 보통 여인은 아니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96호	
일간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0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2		9	8
	3				7			
				9				6
			2	6		4		
6		8				2		5
		4		5	9			
2				7				
			5				6	
8	4		1		3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ㄴ	ㅁ	ㅂ	ㅅ	ㅇ	ㄹ	ㅁ	ㄷ			
ㄴ	ㅅ	ㅇ	ㄹ	ㅁ	ㅂ	ㅅ	ㅇ	ㄹ			
ㄷ	ㄴ	ㅁ	ㅂ	ㅅ	ㅇ	ㄹ	ㅁ	ㄷ			
ㄴ	ㅅ	ㅇ	ㄹ	ㅁ	ㅂ	ㅅ	ㅇ	ㄹ			
ㄷ	ㄴ	ㅁ	ㅂ	ㅅ	ㅇ	ㄹ	ㅁ	ㄷ			
ㄴ	ㅅ	ㅇ	ㄹ	ㅁ	ㅂ	ㅅ	ㅇ	ㄹ			
ㄷ	ㄴ	ㅁ	ㅂ	ㅅ	ㅇ	ㄹ	ㅁ	ㄷ			
ㄴ	ㅅ	ㅇ	ㄹ	ㅁ	ㅂ	ㅅ	ㅇ	ㄹ			
ㄷ	ㄴ	ㅁ	ㅂ	ㅅ	ㅇ	ㄹ	ㅁ	ㄷ			
ㄴ	ㅅ	ㅇ	ㄹ	ㅁ	ㅂ	ㅅ	ㅇ	ㄹ			
ㄷ	ㄴ	ㅁ	ㅂ	ㅅ	ㅇ	ㄹ	ㅁ	ㄷ			